

무등산도립공원의 이용실태 및 행태분석

The Analysis of Visiting Pattern and Activity in Moodeung Mountain Provincial Park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최기호* · 이규원**

I. 서론

광주시의 동쪽에 인접한 배산으로 시민들의 휴게·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도심과 인접한 대규모 녹지공간으로서 광주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무등산은 호남지역 최초로 1972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이 30.23km²으로 광주시의 2개구, 전라남도 2개군에 걸쳐 위치함으로서 광주 광역권내 도시민들의 1일 등산 및 소풍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자원이 풍부한 자연공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의 생태적인 보전과 관리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결과 자연자원의 파괴와 훼손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이용 특성상 이용객의 수요가 많고 집중적인 점과 자연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미흡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면적과 성격이 다소 상이한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도시에 매우 근접하고 있어 도시공원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이용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용과 자연자원 보존문제가 상존해 있는 무등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행태를 분석하여 무등산도립공원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무등산도립공원의 이용실태 및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이용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1차 '98. 9. 24 ~ 9. 30, 2차 '98. 10. 28 ~ 11.3, 3차 '99. 1. 20 ~ 1. 26에 걸쳐 총 704매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본 대상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별로 1회에 1부씩을 배포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용행태 특성, 경관인식 특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의 3문항으로 이용행태 특성은 이용횟수, 동반자수, 탐방목적 그리고 경관인식 특성으로는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항으로 세분하였다.

(2) 이용실태조사

이용실태조사는 설문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점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중심사집단시설지구의 중심교에서 분리되는 토끼등 등산로, 덕산골 등산로, 중머리재 등산로 3곳과 원효사집단시설지구의 꼬막재 등산로와 늦재 등산로 지점 5곳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1) 이용행태분석

이용행태 분석은 설문지를 회수하고 이를 전산자료화한 후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각 인자군과 이용자 특성을 연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실태분석

이용실태자료는 각 통과지점에서 이용객의 총 통행객을 산출하고, 주별 통행량을 산출하였으며, 요일별, 시간대별, 장소별로 그 형성시간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설문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3%, 여자가 3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1~50세 25%, 51~60세 23.6%로 4~50대가 49.1%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주시민이 전체 이용객의 94%로 대부분이 광주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행태 특성은 무등산 이용횟수 1달에 2~3회가 27.0%, 4~5회가 23.7%로 2~5회가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8회 이상도 16.3%로 나타나 이용객의 대부분은 1주일에 1회 이상 무등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특성으로는 2~3명이 53.2%, 4~5명이 21.3%로 나타나 이용객 대부분이 동반자와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목적으로는 건강 유지를 위해가 59.2%, 산이 좋아서가 27.2%로 나타났으며, 이곳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대중교통의 편리가 32.1%, 등반의 편리가 23.8%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시 불편한 사항으로는 휴지통 23.2%, 화장실 19.3% 순서로 높게 나타나 더 많은 편익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경관인식 특성으로 무등산의 가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이 풍부해서가 36.7%, 광주의 상징적 의미 31.6%, 역사·문화적 가치 15.4%로 나타났다.

2. 이용실태 조사결과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79%,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21%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8:2 정도의 비율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의 증심교~중머리재가 39%, 토끼등이 34%로 이 두곳의 집중률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요일별 이용객은 일요일이 46%, 토요일이 23%로 나타났으며, 평일은 이용객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용객은 날씨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이용현황은 10시를 시점으로 점차 이용객이 많아지기 시작하여 12시에 최정점에 이르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V. 결론

무등산은 자연중심적 도립공원이기는 하지만 광주시 도심지에 인접함으로서 1일 방문의 근린공원적 성격과 유원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휴일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이용되고 있어 혼잡의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파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교통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용과 보존의 수준은 자연자원, 관리, 이용자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나, 무등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비하여 보다 명확한 대상지의 성격, 형태 그리고 이용 영향에 대한 회복능력, 수용능력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